

한 국 여 성 재 단

2026년도 제 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2026년 6월 19일(금) 오후 12시
- 장 소: 한국여성재단 2층 W나누리
- 참석이사: 장필화, 김성원, 김원용, 김혜숙, 김효선, 한현옥, 황윤옥, 강민아(업무감사) (8인)
- 불참이사: 김은실, 박옥희, 신창재, 오현석, 이광희, 김귀순(회계감사) (6인)

I.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장필화 이사장이 이사 및 감사 14인 중 8인이 참석하여 이사회 성원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하다.
- 장필화 이사장이 2026년 제2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II. 전차 회의록 인준

- 제출된 자료대로 참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하여 전차 회의록(26.2.27 제1차 정기이사회)을 인준하다.

III. 안건 의결

1. 사무처 팀 개편 건

- 노지은 사무총장이 현 지원사업1팀, 지원사업2팀에서 지원사업팀, 전략사업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다.

- 팀 개편 건에 대해 김혜숙 이사가 동의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하다.

2. 정관 변경 건

- 안건 1과 관련하여 사무처 관장사무 및 기구조직도 등과 같이 재단 운영에 있어 수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정관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다(황윤옥 이사).

- 장필화 이사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관 내 관련 내용 삭제에 대해 김효선 이사 동의와 김성원 이사의 재청,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다.

IV. 기타

1. 비전체계 TF 구성

- 노지은 사무총장이 한국여성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연구 5대 핵심목표(2025_2029)에 대해 설명하고, 첫 번째 추진과제로 '비전 체계 재검토'의 전담 TF구성을 제안하다.

- 비전 체계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TF 구성에 대해 참석자 전원 찬성하다. 비전과 미션은 쉽고 명확해야 한다.(김혜숙 이사) 여성재단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사회 전체를 리드하는 포지셔닝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포괄적 비전과 미션을 수립해야 한다.(김원용 이사, 김성원 이사) 재단 포지셔닝은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과 연결된 문제다.(김효선 이사, 강민아 감사). 비전체계 재정립 과정까지 간다면 이사 추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다.(한현옥 이사) 비전체계 검토 범위, 역할, 기간 등은 TF에서 정하고 사무처는 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다.

2. 차기 이사회 일정

- 2026년 3차 정기이사회 개최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12시

V. 사업 보고

- 제출된 자료(26.02.27~26.06.18) 중 주요 활동(W액션나눔캠페인,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 20주년, 브레이브체인지스 3년 성과공유,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0년 연구 및 아카이빙 등)에 대해 설명하다.(노지은 사무총장)

- 재단의 의미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 재단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김원용 이사) 새로운 세대 유입을 위해서는 이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확보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한현옥 이사)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은 여성활동가 리더 양성을 위한 10년 목표를 넘어 20년간 지속해오면서 혁신적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성과이다.(김혜숙 이사) 이러한 기업과 여성재단의 장기 파트너십 사례는 한국에서 매우 드문 성과로서 알릴 필요가 있다.(김성원 이사).

VI. 폐회

- 오후 2시에 폐회하다.

기록 : 강 영 아 

확인 : 노 지 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서교동)

이 사 장 장 필 화



이 사 김 성 원



이 사 김 원 용



이 사 김 혜 숙



이 사 김 효 선



이 사 한 현 옥



이 사 황 윤 옥

